

## 라닉스, 2022 C-ITS 상호호환성 시험에서 제품 우수성 입증

- ▶ 지난 13~20일 자율주행 스마트 인프라 적합성 확인 행사 개최
- ▶ 자율주행의 필수 조건인 국제보안규격을 모두 만족

**<2022-11-01> V2X(차량사물통신) 전문기업 라닉스(대표이사 최승욱, 317120)가 2022 C-ITS 상호호환성 시험에서 제품 우수성을 입증했다.**

라닉스가 2022년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상호호환성 시험 행사(K-Plugtest)에 참가, 라닉스의 V2X 보안스택과 통신스택이 국제보안규격 'IEEE 1609.2 & IEEE 1609.3'을 모두 만족하며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다.

금번 행사는 국토부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ITS코리아(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주관하여, 기업들이 개발한 자율협력주행 스마트 인프라(단말기, 기지국, 인프라, 시험장비 등) 기기들에 대한 표준 적합성과 호환성을 확인하는 시험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간 서울대학교 FMTC 등에서 열렸으며, LG이노텍(주), (주)라닉스, 엠피온(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 참석했다.

라닉스는 V2X 통신 칩셋, V2X 보안 스택, V2X 통신 스택, V2X 인증을 위한 솔루션을 보유한 종합 솔루션 업체로, 이번 우수성 입증을 통해 다양한 참가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 라닉스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기반으로 V2X 보안 스택, V2X 통신 스택, 보안인증 관리시스템(SCMS) 연동 등 총 3가지 분야에 참가했다. 라닉스는 금번 행사에서 ▲Hybrid 차량탑재장치(하나의 차량탑재장치에서 근거리전용통신의 일종인 웨이브(WAVE) 기술과 이동 통신 기반 C-V2X가 동시에 운용 가능한 플랫폼. 라닉스 독자기술 개발) ▲RVP(국제보안 규격 호환 V2X 통신 및 보안 소프트웨어 플랫폼. 라닉스 독자기술 개발) 제품을 선보였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 정보, 각종 위험 정보 등을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 인프라로, 완전자율주행을 위해선 빠르고 안전한 통신망 보안이 필수적이다.

라닉스의 제품은 V2X 보안스택과 통신스택이 국제보안규격인 IEEE 1609.2와 IEEE 1609.3를 모두 만족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검증받았다. 국제 규격인 IEEE 1609.2와 IEEE 1609.3은 자동차 환경에



서의 V2X 무선통신 표준으로서, C-V2X 와 웨이브(WAVE)에서 모두 사용하는 보안과 통신 네트워킹 서비스 국제 표준 규격이다.

라닉스 관계자는 “국내 자율주행 보안 분야에서 C-ITS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 검증을 통해 라닉스가 자율주행 및 보안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임을 입증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